

음악과 경영학 전공 대학생들의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 비교분석*

최 진 호**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음악과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269명(N=269)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Curriculum Satisfaction Inventory For Music & Management Majors (CSIMM)을 통해 두 전공 간 커리큘럼 및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측정도구인 CSIMM은 교수, 교과과정, 학교, 졸업 후 진로 등 네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높은 내적일관성신뢰도가 확인되었다($\alpha=.88$). 본 연구 결과, 음악, 경영 전공 상관없이 교과과정에서 교수와 관련한 요인들이 가장 만족하는 요인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전공이 교수의 전문성 면에서 경영전공에 비해 더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악전공은 경영전공과 비교하여 졸업 후 진로와 관련된 요소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습실 등 교육환경면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음악대학들이 연습실 등 현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졸업 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실질적 교과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 주제어: 음악대학생, 음악교육, 대학 교과과정, 대학 만족도

차 례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Participants) 2. 연구의 제한점(Limitation)
 - 3. 연구절차(Procedure) 4. 검사도구(Questionnaire)
 - 5. 결과분석(Data Analysis)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2014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전공전담교수(jhc0028@cau.ac.kr)

I. 서론

현재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학의 구조조정이다. 교육부는 2014년 1월 29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각 대학을 5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나누고,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9년간 대입정원 16만 명을 감축하는 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4). 특히 하위 20%의 대학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받게 될 예정이며,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될 예정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당장 4년 뒤인 2018년 입시부터 대입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적게 되는 역전현상과 그동안 학령인구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늘어난 대학의 양적 팽창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상위권과 하위권을 나누게 될 정성평가를 어떻게 실시하는가에 있다. 실제로 이 안이 발표되자마자 각 대학들은 정성평가지표에 모든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금까지 취업률과 충원률 등 수치로 나타나는 정량평가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계량적 수치로만 확인하기 어려웠던 질적인 부분까지 평가하는 정성평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성평가에 대한 예시로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나 교육의 질 평가로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의 만족도 등을 측정하고, 평가에 중요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정량평가에 머물고 있던 취업률도 취업이 유지되는 비율이나 일자리의 질과 같은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각 대학들에게 앞으로 정성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가 다가오는 구조조정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 구조조정의 흐름은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와 졸업 후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음악대학에게는 더욱 큰 변화를 예고한다. 사실 대부분의 음악대학 교과과정이 연주자를 양성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고, 연주자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적은 소수에게만 주어지기에, 음악대학을 졸업하는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정완규, 권수미, 2009; 정환호, 최진호, 2013; 최시원, 1983; 최진호, 정완규, 2009). 더구나 이러한 현실에서 음대생들이 연주 이외의 분야로 나가려고

해도 다른 분야에 대한 정보와 학습경험 부족으로 진로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환호, 최진호, 2014).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음악전공의 특수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진로문제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음악전공자, 특히 클래식 음악전공자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편이다(조선우, 김원명, 1999; 이가원 2009, 정환호, 최진호 2013).

반면, 경영학 전공의 경우, 취업률과 직업 안정성 면에서 음악전공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한국교육통계연구센터, 2012). 임채운과 이원준(2006)의 연구에 의하면, 경영학 전공은 타 전공에 비해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경쟁력과 교과과정의 효율성, 그리고 실제 취업 후 수익성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한국교육통계연구센터(2012)의 보고서에서도 경영학 전공은 가장 취업이 잘되는 전공인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졸업생들의 실질적 취업률과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악전공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모든 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경영전공을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정환호, 최진호, 2014). 물론 음악전공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교육목표와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영전공과 직접비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과 경영학 교과과정에 대한 직접 비교에 있지 않고, 두 전공생들 각자가 느끼는 본인들의 전공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음악대학 교과과정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에, 두 전공 간 각자의 교과과정 만족도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한 커리큘럼 및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만족도와 비교분석하여 음악대학의 커리큘럼 및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과 음악대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음악과 경영전공 대학생들의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요인별 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음악과 경영전공 대학생들의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대학의 전공 선택과 교과과정은 졸업 후 진로와 직업의 선택에 있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양명희 외, 2010). 특히 교과과정은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현재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이 현대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나가게 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 대학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권덕원 외, 2010). 이러한 점에서 정영근(2000)은 전통적인 의미의 자료와 문서의 의한 교육과정 개발을 넘어서 상황분석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 학교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국가가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보다 역동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교육과정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홀랜드(Holland, 1997)는 대학 전공학과의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교수와 학생 간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공유하며, 취업과 관련한 실전기회들을 제공하면 할수록 실제적 취업률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전공과 관련한 직업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교과과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수업과 더불어 실제 사회 속에서 개인적 경험이나 실무 경험을 쌓게 해 줄 경우, 학생들의 실제 업무에 대한 분석적 능력과 인간관계능력, 그리고 조직구성 능력이 늘어남과 동시에,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주영, 2013; Kuh, 1995).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음악대학의 교과과정이 현재의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잘 반영하여 음악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며, 실질적 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대학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한국 교육개발원의 한국 교육통계연구센터(2012)에 의하면, 국내 음악 전공자들의 졸업인원이 2012년 기준 5547명이며, 이들 중 취업한 인원은 21%에 그치고 있어, 음악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실제로 취업한 21%도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 엄밀한 의미에서의 실질적 취업률은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영 전공자들의 경우 59.2%가 취업에 성공하여 음악대학 졸업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사회계열에서도 가장 높은

취업률로 음악대학 졸업생들에 비해 경영전공 졸업생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취업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낮은 취업률과 진로문제는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도 꾸준히 보고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최시원, 1983; 정완규, 권수미, 2009; 정환호, 최진호, 2013). 하지만 모든 음악교육계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음악대학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현재의 음악대학 교과과정은 실질적 사회적 요구나 변화와는 동떨어진 것이 현실이다(정완규, 권수미, 2009; 최시원, 1983; 정환호, 최진호, 2013; 최진호, 정완규, 2009).

실제로 음악대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음악대학 교과과정의 진로적합도를 분석한 정환호와 최진호(2013)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음악전공생들은 전공을 선택할 당시 취업기회의 보장이나 수입의 보장과 같은 졸업 후 진로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과정의 진로적합도를 낮게 평가하였으며, 음악대학 교과과정의 가장 큰 문제를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준비부족이라고 지적하여 음악대학의 교과과정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음악대학의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를 점검하고, 속히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과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로우체와 베이커(Roueché & Baker, 1993)는 대학 교과과정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평가하고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8가지 기본적 요소들을 제시하였는데, 일반적인 교과목들을 포함한 교과과정, 평가시스템 구축, 기본적 교과과정 지원,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여부, 실제 학술적 능력 배양, 피드백 시스템, 졸업 후 진로지도, 교수 및 인적자원개발 등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신소영과 권성연(2012)은 대학교육을 개선해 나감에 있어 대학교과과정에 대한 실질적 주체인 대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대학생 6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및 수업, 교육환경, 행정서비스, 학생지도, 학생지원, 대학생활, 학교이미지 등 7가지 요인, 27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그 구체적 문항들을 살펴보면,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제공, 장학금 수혜 기회와 배분의 공정성,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한 지원, 다양한 과목개설, 성적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 업무처리 결과의 신뢰성, 취업 및 진로설정,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지도에 대한 열의”(p. 55)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교과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교과과정 만족도 조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음악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최진호, 2010). 음악대학생들은 일반전공생들이 일반 학과공부에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실기와 학업을 함께 병행해야한다는 점에서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음악대학의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개선할 때, 실기와 연관된 음악대학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음악대학생들은 실기와 연관된 교수와의 관계나 교수의 전문성, 연주 실력의 향상, 연습실 환경, 그리고 실제 연주기회 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를 선택하거나 전공을 선택할 당시 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완규, 최진호, 2009; 최진호 2010, Choi, 2013).

이러한 음악전공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졸업생 중 21%만 취업이 가능하고, 졸업자의 대부분이 취업하지 못하는 음악대학의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반면, 타 전공에 비해 가장 높은 취업률(59.2%)을 자랑하는 경영전공은 직업 안정성 면에서 음악대학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임채운, 이원준, 2006). 다시 말하면, 현재 졸업생들의 저조한 취업률과 진로문제로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는 음악전공생의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졸업 후 진로와 취업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경영학 전공생들과 비교/분석해 보는 것은 음악대학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정환호, 최진호, 2014).

이러한 점에서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한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취업률과 학업환경 측면에서 전혀 다르게 위치해 있는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만족도와 비교분석하여, 음악대학의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과 음악대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수, 교과과정, 학교, 졸업 후 진로 등 네 가지 요인을 구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검사도구인 Curriculum Satisfaction Inventory For Music & Management Majors(CSIMM)를 제작하였다. CSIMM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과 내용들은 연구방법의 검사 도구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에 위치한 C, D, D H, K, K, S, S, S, S, Y 등 11개 대학교의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191명의 음악 전공 대학생들과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C, D, E, H, K 등 5개 대학(2개 대학은 위의 음악대학 대상과 중복)에 재학 중인 78명의 경영학 전공생들을 대상(n=269)으로,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한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만족도와 비교분석하여 음악대학의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과 음악대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음악 전공의 범위는 실용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을 제외한 서양음악 전공자들로 제한하였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의 성별분포를 보면, 음악대학의 경우 여자가 161명(84%)으로 남자(n=31, 16%)보다 월등히 많은 반면, 경영전공은 남자가 41명(53%), 여자 37명(47%)로 남녀 간 성비가 비교적 비슷하였다. 참가자들의 학년은 음악전공의 경우 2학년이 58명(30%)으로 가장 많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1학년 56명(29%), 4학년 41명(22%), 3학년 36명(18%) 순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경영전공도 음악전공과 마찬가지로 2학년이 26명(33%)으로 가장 많은 수가 참여하였고, 1학년 23명(30%), 3학년 18명(23%), 그리고 4학년 11명(14%) 순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평소 하루에 투자하는 전공과 관련한 학습시간 및 연습시간에 대한 질문에 음악대학생들은 평균 2.31(SD=1.19)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영대학생들은 평균 1.59(SD=.80)시간으로 음악전공생들이 경영전공생들에 비해 전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대한 설문조사는 14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자발적 연구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에 대한 절차는 연구절차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11개 대학에 소속된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음악전공 생들(N=191)과 5개 대학(2개 대학은 중복)에 재학 중인 경영전공생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의 적용은 대상이 된 14개 학교로 제한하여야 하며, 다른 교육상황에서의 일반화는 신중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14개 대학의 음악과 경영전공생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한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만족도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음악대학과 경영대학으로 나누고, 각 대학에 이메일과 전화 그리고 대학소속 교원에게 직접 연구 참여를 부탁하였고, 이 중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11개의 음악대학과 5개의 경영대학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중 두 개의 대학은 같은 학교 소속으로 결국 총 14개의 대학교가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실제 설문지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비확률적 표집방법 중 연구목적에 동의하는 참가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자 표집방법(Volunte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지원자 표집 방법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를 거부하는 연구대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법적, 윤리적 문제 때문에 연구대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구”(성태제, 2010, p. 99)인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위의 14개 학교가 선정된 후, 각 대학에 설문지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고, 각 대학은 설문지를 출력하여 연구 참가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결과 269명(n=269)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담당교수 또는 조교가 참가자들이 제출한 설문지를 모아 다시 연구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4. 검사도구(Questionnaire)

본 연구의 검사도구인 Curriculum Satisfaction Inventory For Music & Management Majors (CSIMM)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첫 번

제 부분은 음악 또는 경영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각 전공에 대한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수(2문항), 교과과정(10문항), 학교(6문항), 졸업 후 진로(3문항) 등 네 가지 요인을 구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21개의 문항을 5단계 Likert 척도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제작되었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교과과정과 운영체제를 구인하기 위하여, 먼저 각 음악대학과 경영대학의 교과과정을 조사 분석하여 공통된 교과목들을 구인하였으며, 이렇게 구인된 교과목들을 음악대학과 경영대학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10가지 핵심교과목으로 확정 선별하였다. 또한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도,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교수(2문항), 학교(6문항), 그리고 졸업 후 진로(3문항)로 추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전체 검사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를 위해 3명의 전문가를 통해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Check)를 측정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다음으로 제작된 검사지에 대한 필드테스트와 내적일관성신뢰도(A Cronbach's alpha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coefficient)를 측정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내적 신뢰도($\alpha=.88$)가 확립되어 음악과 경영대학생들의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전공 만족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음악/경영전공생들의 커리큘럼 및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 검사도구(CSIMM)의 문항구성 및 주요내용

요인	검사문항의 주요내용(ASIMM)	문항 수	신뢰도(α)
교수	교수의 가르침 교수의 전문성	2	.81
교과과정	교과과정 구성요소 (5개 주요과목 포함) (음악 / 경영) 전공실기/경영경제원론 전공필수/경영정보시스템 음악이론/재무회계 음악사/인적자원관리 합창 및 합주/마케팅 현재 학교의 교과과정 운영체제 현재 학교의 각 수업의 내용 및 질 현재 학교의 각 수업의 학급인원 수 현재 학교가 제공하는 연주(실무)기회	10	.87

요인	검사문항의 주요내용(ASIMM)	문항 수	신뢰도(α)
학교	재학 중인 학교의 명성 재학 중인 학교가 제공하는 학위 재학 중인 학교의 도서관 환경 재학 중인 학교의 장학금 제도 재학 중인 학교의 연습(실습)실 환경 재학 중인 학교의 교실 환경	6	.72
졸업 후 진로	본인의 연주(실무)능력 향상 본인의 일반 학술능력 향상 현재 학교가 제공하는 졸업 후 취업기회	3	.71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21	$\alpha = .88$

두 번째 부분은 음악과 경영대학생들이 전공과 관련하여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학습, 연주, 실무경험 등 포함)을 알아보기 위한 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부분은 본 연구 참가자들의 개인적 배경(성별, 학년 등)에 관한 2가지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전에는 설문지를 구성함에 있어 개인적 배경을 뒤에 두기도 하였으나, 현재 조사연구방법에서는 개인적 배경을 맨 뒤에 두도록 권고하고 있기에, 이러한 학계의 흐름을 따라 맨 마지막에 개인적 배경에 관한 질문이 오도록 구성하였다.

5. 결과분석(Data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음악과 경영전공 대학생들의 전공과 관련한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PASW Statistics 17.0(SPSS 17.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검사도구인 Curriculum Satisfaction Inventory For Music & Management Majors (CSIMM)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음악과 경영전공생들의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첫 번째 부분의 21개 문항들은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제작되었기에, 각 요인들에 대한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서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음악과 경영전공생들의 만족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각 요인별 두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고,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요인을 선별하여, 등분산 가정이 되는 요인은 t 검정을, 등분산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요인

은 Welch-Aspin 검정을 시행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론의 원칙에 따라 21가지 요인 중 두 집단 간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요인만을 결과에 보고하였다. 두 번째로 음악과 경영대학생들이 전공을 위해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지를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범위로 측정하여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배경부분은 성별과 학년을 묻는 두개의 주관식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빈도수(Frequency)를 측정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음악과 경영대학생들의 커리큘럼 및 운영체제에 대한 요인별 전공만족도 결과 분석

다음의 <표 2>는 음악전공생들이 생각하는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요인별 만족도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내림차순으로 나타낸 것으로 평균의 범위(Range)는 3.67에서 2.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요인별 만족도 분석

요인(Factor)	평균(Mean)	표준편차(SD)
교수의 전문성	3.67	.94
교수의 가르침	3.44	.97
학교가 제공하는 학위	3.35	2.31
교과과정	3.27	.65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명성	3.23	.98
각 수업의 학급인원 수	3.18	.96
본인의 연주능력향상	3.13	.91
일반 학술능력 향상	3.12	.91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환경	3.06	.92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교실환경	2.96	.90
각 수업의 내용 및 질	2.94	.92
현재 학교의 교과과정 운영체제	2.83	.90
현재 학교가 제공하는 실제연주기회	2.82	.93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장학금 제도	2.57	1.05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연습실 환경	2.50	1.03
현재 학교가 제공하는 졸업 후 취업기회	2.41	.89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음대생들은 교수의 전문성(M=3.67; SD=.94), 교수의 가르침(M=3.44; SD=.97), 그리고 학교가 제공하는 학위(M=3.35; SD=2.31)등의 요소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장학금 제도(M=2.78; SD=1.03),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연습실 환경(M=2.50; SD=1.03), 그리고 현재 학교가 제공하는 졸업 후 취업기회(M=2.41; SD=.89) 등이 음대생이 가장 적게 만족하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3>은 경영전공생들이 생각하는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요인별 만족도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내림차순으로 나타낸 것으로 평균의 범위(Range)는 3.28에서 2.5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경영전공 대학생들의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에 대한 요인별 만족도 분석

요인(Factor)	평균(Mean)	표준편차(SD)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환경	3.28	.94
교수의 전문성	3.28	.97
교수의 가르침	3.23	2.31
교과과정	3.08	.65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교실환경	3.05	.98
일반 학술능력 향상	2.97	.96
본인의 실무능력향상	2.96	.91
각 수업의 학급인원 수	2.96	.91
현재 학교의 교과과정 운영체제	2.95	.92
각 수업의 내용 및 질	2.94	.90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연습실 환경	2.92	.92
현재 학교가 제공하는 졸업 후 취업기회	2.81	.90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장학금 제도	2.79	.93
학교가 제공하는 학위	2.74	1.05
현재 학교가 제공하는 실무경험기회	2.64	1.03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명성	2.59	.89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경영전공생들은 학교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환경(M=3.28; SD=.94), 교수의 전문성(M=3.28; SD=.97), 그리고 교수의 가르침(M=3.23; SD=2.31)등의 요소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학교가 제공하는 학위(M=2.74; SD=1.05), 현재 학교가 제공하는 실무경험기회(M=2.64; SD=1.03), 그리고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명성(M=2.59; SD=.89) 등이 경영전공생들이 가장 적게 만족하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악과 경영전공 대학생들의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 만족도에 대한 t 검정 결과

다음의 <표 4>는 음악과 경영전공생들이 생각하는 진로와 연관된 학교 명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두 독립표본 t 검정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음악전공의 진로와 연관된 학교 명성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3.23으로 표준편차는 .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영전공의 학교명성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59이며, 표준편차는 .87로 나타났다. 음악과 경영전공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 값은 5.02이며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전공에 따라 학교명성의 만족도에 통계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음악과 경영전공에 따른 학교 명성에 대한 만족도 비교 분석(t test)

전 공	음 악	경 영
평균(M)	3.23	2.59
표준편차(SD)	.98	.87
사례 수(N)	191	78
t 통계값	5.02	
유의확률	.000	

다음의 <표 5>은 음악과 경영전공생에 따른 교수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두 독립표본 t 검정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음악전공의 교수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67(SD=.94)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전공의 교수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74(SD=.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과 경영전공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3.28이며 유의확률은 .002로 유의수준 .05에서 전공에 따른 교수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에 통계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음악과 경영전공에 따른 교수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비교 분석(t test)

전 공	음 악	경 영
평균 (M)	3.67	2.74
표준편차 (SD)	.94	.82
사례 수 (N)	191	78
t 통계값	3.28	
유의확률	.002	

3. 음악과 경영전공 대학생들의 교과과정 및 운영체제 만족도에 대한 Welch-Aspin 검정 결과

다음의 <표 6>은 음악과 경영전공에 따른 학교가 제공하는 졸업 후 취업 기회제공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두 독립표본 t 검정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Levene의 두 집단 간 등분산 가정 검정결과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기에 t 검정 대신 Welch-Aspin 검정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음악전공의 졸업 후 취업기회제공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2.41(SD=.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영전공의 졸업 후 취업기회 제공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81(SD=.74)인 나타났다. 또한 음악과 경영전공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2.27이며 유의확률은 .024로 유의수준 .05에서 전공에 따라 학교가 제공하는 취업기회의 만족도에 통계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악전공보다 경영전공이 재학 중인 학교의 졸업 후 취업기회제공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음악과 경영전공에 따른 학교가 제공하는 졸업 후 취업기회제공에 대한 만족도 비교 분석(Welch-Aspin 검정)

전 공	음 악	경 영
평균(M)	2.41	2.81
표준편차(SD)	.89	.74
사례 수(N)	191	78
t 통계값	-3.77	
유의확률	.000	

다음의 <표 7>은 음악과 경영전공에 따른 학교의 연습실/실습실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Welch-Aspin 검정 결과이다.

<표 7> 음악과 경영전공에 따른 학교의 연습실/실습실 환경에 대한 만족도 비교 분석(Welch-Aspin 검정)

전 공	음 악	경 영
평균 (M)	2.50	2.92
표준편차 (SD)	1.03	.73
사례 수 (N)	191	78
t 통계값	-3.81	
유의확률	.000	

결과를 살펴보면, 음악전공의 학교 연습실 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2.50(SD=1.03)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영전공의 실험/실습실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92(SD=.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과 경영전공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3.81이며 유의확률은 .000로 유의수준 .05에서 전공에 따라 연습실 또는 실험/실습실의 만족도에 통계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악전공의 연습실 환경보다 경영전공이 재학 중인 학교의 실험/실습실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한 커리큘럼 및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만족도와 비교 분석하여 음악대학의 커리큘럼 및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과 음악대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수도권 및 경기도에 위치한 14개의 4년제 대학(국, 공립 및 사립대학 모두 포함)에 재학 중인 269명의 음악과 경영전공생들로,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Curriculum Satisfaction Inventory For Music & Management Majors (CSIMM)를 통해 교과과정 만족도를 측정,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측정도

구인 CSIMM은 기존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교과과정, 학교, 졸업 후 진로 등 네 가지요인으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들이 학생들이 만족하는 요인인지, 그리고 음악과 경영전공생들의 만족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제작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과 경영전공생들은 전공 상관없이 교과과정에서 교수와 관련한 요인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학의 경쟁력과 졸업 후 진로문제에 교수의 능력과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본 연구조사를 통해 나타난 21개의 개별 요소들 중 상위 3개를 살펴보면, 음악과 경영 전공 모두 교수의 전문성, 교수의 가르침을 선택하고 있어, 전공 상관없이 대학의 경쟁력은 교수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둘째, 음악전공생들은 경영전공생들보다 교수의 전문성 면에서 더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전공과 비교하여 음악대학생들에게 학업과 진로에 있어 교수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음악과 경영 모두 교수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택하였지만, 두 집단 간 실시한 t 검정에서는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전공생들과 비교하여 음대생들에게 교수가 얼마나 더 중요한 요소인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셋째, 음악전공생들은 교과과정 운영체제에서 전공실기를 연습하는 연습실 환경에 대해 매우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음악전공생들은 연습실 환경을 가장 낮은 요소 중 하나로 지적하였으며, 음대의 연습실과 경영전공생들의 실험/실습실을 비교분석한 Welch-Aspin 검정결과, 두 집단 간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었다. 이는 음대생들이 학교 수업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연습실에서 보내고 있으며, 실제로 연습실 환경이 전공실기능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경영전공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도서관의 서비스와 환경을 가장 만족하는 요소로 선택했다는 점은 음악대학에도 시사 하는바가 크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각 음악대학들은 보다 쾌적하고 효과적인 연습실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음악전공생들은 교과과정 중에서 학교가 제공하는 졸업 후 취업기회

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음악대학생들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한 음악대학의 준비와 대책이 미흡하다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특히 졸업 후 취업기회 제공에 대한 Welch-Aspin 검정결과도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두 집단 간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경영전공에 비해 음악전공의 교과과정이 졸업 후 취업 문제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음악 대학의 교과과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고, 현재 재직 중인 교수들의 역량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학생들의 연주실력 향상을 위해 연습실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것을 감안하여, 현재의 교과과정을 졸업 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실질적 교과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가 각 음악대학들과 교수들에게 보다 나은 경쟁력 있는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4).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발표. 서울: 교육부. Retrieved from <http://www.moe.go.kr/web/106888/ko/board/view.do?bbsId=339&boardSeq=52452&mode=view>
- 권덕원 외(2010).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서울.
- 양명희, 박명지, 김희정 (2010).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 직업흥미 수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교육학회**, 29(1), 137-156.
- 이가원 (2009). 대학의 음악 산업 프로그램 중 음악경영과 음향제작 전공 교과과정 개발. **음악교육공학**, 9, 115-131.
- 임채운, 이원준(2006). 국내 경영학연구의 관점과 영역에 대한 고찰. **대한경영학회지**, 19(9), 2135-2165.
- 성태제 (2010). **연구방법론**. 학지사: 서울.
- 신소영, 권성연(2012). 대학교육 중요도-만족도 분석 및 교육만족도 제고방안

- 탐색. **教育問題研究**. 45, 55-85.
- 정영근 (2000). SBCD(School Based Curriculum Development)에 따른 교육과정개발 방법의 고찰. **教育問題研究**. 18(2), 297-322.
- 정완규, 권수미 (2008) 우리나라 대학원에서의 피아노 교수학 석사과정 운영 실태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 **이화음악논집**, 12 (2), 28-62.
- 정주영 (2013). 대학교육만족도, 직업가치관, 직업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1), 53-83.
- 정환호, 최진호, (2013).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교과과정 적합도 조사. **음악교육연구**. 37, 215-244.
- 정환호, 최진호, (2014). 음악과 경영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요인 및 교과과정의 진로 적합도 조사. **음악교육공학**. 19, 161-174.
- 조선우, 김원명, (1999). 지방 음악대학 (학부, 학과) 교육과정 개선 및 경영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음악과 민족**. 17, 123-153.
- 최시원 (1983). 한국대학 음악교육의 교과과정문제. **음악연구**. 2(1), 91-100.
- 최진호 (2010).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들의 교육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음악교육연구**. 38, 149-171.
- 최진호, 정완규, (2009).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선택요인 분석과 졸업 후 진로조사. **음악교육연구**. 37, 215-244.
- 한국교육통계연구센터 (2012). **취업통계연보** Retrieved February 1, 2013 from <http://cesi.kedi.re.kr/>
- Choi, J. H. (2013). Attitudes of international music students from East Asia toward U.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31. 346-358.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3n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Kuh, G. D. (1995). The Other Curriculum: Out-of-Class Experiences Associated with Student Learning and Pers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6(2). 123-155.
- Roueche, J. E., & Baker, G. A. (1993). *Access & Excellence: The Open-Door College*. Alexandria, VA: AACJC Publications.

ABSTRACT

Curriculum Satisfaction between Music & Business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Jin-Ho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erceived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urriculum satisfaction level between music and business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N=269). The Curriculum Satisfaction Inventory for Music & Management Majors (*CSIMM*) was developed for investigating the curriculum satisfaction level between music and business maj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professor factors, such as *the professor's teaching* and *the professor's expertise* were perceived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mpacting the level of curriculum satisfaction regardless of music or business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while the future career factors, such as *preparation for the future career* and *condition of practice room* were perceived as the least influential factors for the music majors, relatively compared to business majors. Also, the findings of this study pointed out that schools of music in Korean universities need to develop current curriculums more practically for the future career of music graduates and improve the condition of practice rooms. Recommendation and conclusion were provided for music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key words : music majors, music education, college curriculum, curriculum satisfaction.

투고일: 2014년 1월 31일, 심사(수정): 4월 26일(5월 3일), 게재 확정일: 5월 12일